광주전남 기자협회보

제 203호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발행인 박진표 편집위원장 송대웅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38번길 7 광주문화재단 별관 아트스페이스 5층 전화 062-236-3316



광주문화재단 소공연장에서 지난 20일 열린 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 출범식에서 박진표 회장과 강기정 광주시장,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희로애락 함께 합니다” 45대 기협 힘찬 출발

기자 권익보호·처우개선 최우선
“지역 언론인 자부심 지킬 것”

‘회원의 희로애락을 가장 먼저 챙기는 따뜻한 협회’를 내건 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회장 박진표)가 2년 항해의 닻을 올렸다. ▶관련 기사 2·3면

협회는 지난 20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문화재단 소공연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출범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축사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엄중한 시기에 지역 언론인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320만 주권자의 힘으로 앞으로 30년, 50년 설계를 함께 하자”고 말했다.

출범식은 외빈 소개와 축사, 협회장 인사말, 새로운 집행부 임명장 수여, 협회 고문변호사 위촉장 전달, 공로패 수여,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협회 집행부를 이끌 수석 부회장에는 김주희 여수MBC 기자가 임명됐다. 부회장에는 이현규 광남일보 기자, 주현정 광주MBC 기자, 조시영 광주CBS 기자가 이름을 올렸다.

총괄 사무국장은 백희준 광주일보 기자, 동부·서부권 사무국장은 유대용(전남CBS)·양현승(목포MBC) 기자가 맡았다.

기자협회가 새로 도입한 고문변호사에는 임진석, 유재규, 김정우 변호사가 위촉됐다.

이날 협회는 지난 2년간 협회를 이끈 공로로 류성호 44대 회장에게 공로패를 전했다.

45대 협회는 ‘회원의 희로애락을 가장 먼저 챙기는 따뜻한 협회’를 기치로 출범했다. 현장에서 취재하는 기자의 하루를 이해하고, 고단한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며, 혼자 감당해야 했던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조직이 되는 데 힘쓸 예정이다.

또 44대 집행부의 현안이기도 한 ‘초임 최저임금 1.5배’ 실현을 비롯한 기자들의 권익 보호와 처우 개선을 우선 해결 과제로 삼았다. 박 회장이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회원의 희로애락을 챙기는 ‘생애주기 격려금 확대’, ‘전담 변호사제 운용’, ‘지역 현안 관련 연수’ 등도 추진하고 있다.

박진표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500여 회원과 힘을 모아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몸으로 증명해 온 지역 기자들의 자부심을 지키겠다”며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도 책임 있는 언론의 길을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사무국장



생애주기별 복지 챙기고 현안 짚는 '외유내강' 협회

초중고 입학자녀 둔 회원에 선물
동부 산업현장서 지역경제 진단
운영위, 규약 개정안 2건 의결
올해 체육대회는 가을에 만나요



광주전남기자협회 운영위원회가 지난 20일 광주시 동구 호남동 라마다플라자 충장호텔에서 정기 회의를 열어 규약 개정안 의결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

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는 회원들의 결혼부터 출산, 육아, 자녀 진학, 경조사까지 삶의 모든 순간, 희로애락의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 한 해 계획을 꼼꼼하게 세웠다.

협회는 4인의 부회장 외에도 핵심 사업을 함께 꾸릴 특별위원회 인선을 마쳤다.

장승기 임금요건심의위원장(광남일보), 김상철 공정보도위원장(전남일보), 안세훈 대외협력위원장(남도일보), 이삼섭 교육위원장(무등일보), 김다인 복지·재난위원장(광주일보), 이수민 혁신위원장(뉴스1 광주전남본부), 최환준 2030위원장(전남매일), 송대웅 편집위원장(광남일보) 등이 45대 협회에 승선했다.

회원의 희로애락을 챙기는 생애주기별 복지사업은 연초부터 차근차근 실행 중이다.

협회는 연초 초·중·고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회원을 파악한 뒤 입학 시기에 맞춰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전한다. 올해는 29명의 회원이 협회의 축하를 받을 예정이다. 출산하는 회원에게는 '마더박스'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준다. 44대 광주전남기협이 시작한 마더박스는 올해부터 한국기자협회 회원 전체 대상으로 확대한다.

기자를 보호하고 목소리를 지켜주기 위해 '고문 변호사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또 지역 주재기자의 의견을 반영해 시범적으로 동부(순천), 서부(해남) 권역에 근조기를 비치했다. 전남 22개 시·군 최일선에서 취재하는 주재기자와 즉각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단체 대화방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기협 행사들도 있다.

오는 6월에는 전남 동부권 산업현장 연수 '위기의 여수산단 현장을 가다'를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한다. 석유화학과 철강산업 등 기존 산업 구조 재편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여수·광양을 찾아 기업의 산업구조 전환 노력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계획이다.

올봄에는 사찰 소개팅 '나는 절로'를 마련해 옆구리가 허전한 기자들의 솔로 탈출을 돕는다. 인연을 찾고 싶은 광주·전남지역 기자와 각계 미혼남녀가 고즈넉한 사찰에서 봄날의 낭만을 펼칠 예정이다.

전국 언론인 초청 5·18민주화운동 민주역사기행과 호남권 취재기자 연수, 여순 10·19 역사기행 등 광주전남기자협회의 대표적 사업은 내실 있게 해 협회의 명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44대 기협이 시작한 '이달의 좋은 보도'는 '1월의 기자상' '2월의 기자상' 등으로 이름을 바꿔 추진한다. 올해 기협 체육대회는 선선한 가을바람이 부는 10월에 열린다.

한편 기협 운영위원회는 지난 20일 상반기 정기 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 구성, 회원 부조 관련 규약 개정안을 의결했다. 운영위원회 구성에 임금요건심의위원장, 편집위원장, 공정보도위원장, 대외협력위원장, 재난·복지위원장, 혁신위원장, 2030위원장 등 각 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 회원 경조사 부조금 지급 범위를 회원 자녀 결혼(10만원·화환)과 회원 배우자 부모 사망(화환)까지 확대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회원사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요건 심의에 따라 미충족 지회에 임금인상 개선 방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임금요건심의위원회는 기협 운영위가 다음 달 13일까지 미충족 지회로부터 '임금 인상 시한과 방식' '임금 인상 수준을 명시한 개선 방안'을 받고 추후 징계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지난해 기협 운영위는 '최저임금의 1.5배 이상' 규정을 지키지 못한 지회(소명된 3곳 제외)를 대상으로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의결하고 징계 발효 시기는 차기 집행부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글·사진 백희준 사무국장

지난해 '12월 좋은 보도'에 목포MBC '해조류 산업 붕괴…'

'미역 주산지 완도 폐사'
원인 규명·대안 모색 연속보도

광주일보, 지난해 11월 선정작품
'무안공항 폐쇄 1년…무너진 관광'



지난해 '12월 좋은 보도'에 뽑힌 서일영(오른쪽) 목포MBC 기자가 지난 20일 박종호 지회장으로부터 상금을 전달받고 있다.

올해 첫 광주전남기자협회 선정 '좋은 보도'에 목포MBC '해조류 산업 붕괴…드러난 국가 공백'이 이름을 올렸다.

협회는 지난 20일 '2025년 12월 좋은 보도' 수상자인 목포MBC 서일영, 정상철, 고대필, 홍경석 기자에게 상금 20만원을 전했다.

기협은 지난해 12월 한 달간 보도물을 대상으로 응모작을 공모한 뒤 지난달 15일 운영위원회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목포MBC는 국내 미역 주산지인 완도에서 발생한 원인 미상의 폐사에 대한 취재를 시작으로 부산과 충남 등 해조류 피해현장을 찾아 원인을 찾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속보도를 했다. 수산재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 컨트롤 타워 구축의 필요성을 보도했으며, 현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경보 체계의 허술함을 지적했다.

지난달에는 광주일보 김민석·양재희·서민경 기자의 '무안국제공항 폐쇄 1년…무너진 지역 관광 생태계'가 이달의 좋은 보도에 선정됐다.

이달의 좋은 보도는 땀 흘려 취재한 보도를 독려하고 사장되지 않도록 널리 공유하자는 취지에서 지난 2024년부터 선정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선정작이 잘 기억될 수 있도록 '1월의 기자상'와 같이 해당 월을 표기해 뽑을 예정이다.

백희준 사무국장

광주전남기협, 고문 변호사 3명 위촉

광주전남기자협회가 고문 변호사 3명을 위촉했다. 임기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2년이다.

협회는 지난 20일 임진석 법무법인 이인 대표변호사와 유재규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정우 법무법인 민주로 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전했다.

기협 고문 변호사 도입은 박진표 신임 회장의 공약이기도 했다. 협회 고문 변호사는 협회 활동과 회원 권익 보호의 든든한 법률적 동반자가 될 예정이다. 취재 과정 법률상담부터 회원 개인사와 관련한 다양한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임진석 변호사


유재규 변호사


김정우 변호사

임진석(사법시험 44회·52) 변호사는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항공안전기술원 비상임감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문변호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유재규(사법시험 46회·50) 변호사는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위원, 광주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광주지검 형사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정우(사법시험 51회·47) 변호사는 한국전력 광주전남본부 고문 변호사, 광주시·광주시 남구·광주시 북구·장성군 고문 변호사, 광주시 감사위원회 감사위원 등으로 활동 중이다.

고문 변호사 관련 문의는 광주전남기협(062-236-3316)으로 하면 된다.

백희준 사무국장

새 집행부 포부

"광주·전남 기자들 작은 울타리가 될 것"

수석 부회장 **김주희** 여수MBC



올해로 30년째 취재 현장에서 기자들과 함께 호흡해오고 있습니다. 취재 현장에서 젊은 기자들의 패기 넘치고 재기발랄한 모습을 볼 때마다 이들에게 작은 그늘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 주는 선배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했습니다. 제가 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 집행부에 합류하게 된 이유입니다.

또한 전남 동부권 기자들은 그동안 협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크게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전남 동부권 기자들이 협회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가교 구실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재미있는 협회 만들겠습니다"

부회장 **이현규** 광남일보

제45대 광주전남기자협회 부회장으로 선임되며, 앞에 나서기보다 옆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먼저 하게 됩니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협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뒷받침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편안하게 모으고, 현장의 고민이 자연스럽게 공유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습니다. 딱딱하지 않으면서도 의미 있는 활동이 이어지는, 만나면 반갑고 참여하면 즐거운 '재미있는 협회'를 만드는 데 성실하게 역할을 해나가겠습니다.

"정당한 보상으로 탄탄한 성장 토대를"

부회장 **주현정** 광주MBC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시작합니다. 지역 언론의 미래는 기자의 성장에 있습니다. 그 성장의 핵심은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간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주력해온 '초임 기자 최저임금 1.5배 보장' 촉구는 45대 집행부에서 반드시 매조지하겠습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회원사에는 단호히 개선을 촉구하고, 정당한 보상 체계가 안착할 때까지 집요하게 감시하겠습니다.

나아가 좀 더 안전한 취재 현장, 좀 더 전문적인 취재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연수 기회 등을 건의하고, 실행하겠습니다.

"친구 같은 기자협회에 기대세요"

부회장 **조시영** 광주CBS



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이유로 마음이 꺾이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손을 내밀어 준 선후배 동료들이 있었고, 박진표 회장은 제게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는 그를 '어머니'라 부릅니다. 미력하지만 그 곁에서 힘이 되고 싶어 부회장직을 맡았습니다. 이전 집행부가 기자 처우 개선을 고민하고 실천했다면, 45대 집행부는 여기에 더해 힘들 때 기댈 수 있고, 필요할 때 함께 싸워주는 기자협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힘든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기댈 곳이 없다면, 기자협회가 친구가 되겠습니다.



진상 밝히고 약자 돌아본 '심층 보도' 돋보였다

연합뉴스 '제주항공 참사…' 대상
콘크리트 둔덕 문제 최초 규명

6개 부문 66편 출품 경쟁
취재·기획 등 22편 수상작

한중 지방정부 교류 길잡이
구징치 주광주총영사 감사패



'2025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들이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문화재단 소공연장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다사다난했던 을사년 한 해 보도 현장을 지키며 언론인의 임무를 다한 기자들이 광주전남기자협회 '2025 올해의 기자상'으로 땀 흘린 보람을 얻었다.

광주전남기자협회는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시 남구 구동 광주문화재단 소공연장에서 '2025 올해의 기자상' 시상식을 열어 대상과 최우수상·우수상 등 수상작을 시상했다.

신문·방송·통신 매체에서 총 66편이 출품된 가운데 신문·통신, 방송 취재·기획, 사진, 편집 등 6개 부문별 총 22편의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작이 선정됐다.

'2025 올해의 기자상' 대상의 영예는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형민우·박철홍·정회성·천정인·정다움·김혜인)의 '참사 뒤 숨은 콘크리트 둔덕 로컬라이저 구조물 최초 규명 보도'에 돌아갔다.

연합뉴스는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피해를 키운 로컬라이저의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규명해 국가 항공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 논의를 견인했다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문·통신 취재 부문 최우수상에도 연합뉴스 광주전남취재본부(정회성·천정인·정다움·김혜인)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연속 보도'가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뉴스1 광주전남본부(최성국·이승현·박지현) '광주 하남산단 지하수서 1급 발암물질 TCE·PCE 다량 검출'과 무등일보(이용규·김현주·차솔빈) '전남도청 마지막 지킨 기동타격대 그들은 누구인가', 광주매일신문(김진수·김재정·김애리·변은진·안재영·주성학) '광주 소비쿠폰 취약층에 주홍글씨 단독·연속보도'가 이름을 올렸다.

방송 취재 부문 최우수상은 KBC광주방송(신대희·김형수·임경섭)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추적…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나'가 받았다. **우수상**에는 여수MBC(최황지·배준식) '외국인 노동자 이탈, 고용허가제 사각지대 기획 보도', KBS광주방송총국(김호·박석수) '1300억대 하수처리장 공법 선정 총체적 부실'이 선정됐다.

신문·통신 기획 부문에서는 광주일보(정병호·유연재·김다인·김진아·양재희·장혜원·서민경) '광복 80주년 되짚어 본 광주·전남 아·태유적'이 **최우수상**을 받았다.

우수상 수상작에는 남도일보(김다란·이서영) '최초 전남축제 예산 전수조사 기획보도', 전남매일(박간재·김수화) '광주여성가족재단-전남매일 공동기획-길에서 만나는 광주여성 100년의 역사', 뉴시스 광주전남본부(변재훈·김혜인) '뒤틀린 교육열, 불법전입 횡행에 손 놓은 당국'이 선정됐다.

방송 기획 부문 최우수상에는 목포MBC(박종호·민정섭·홍경석·노영일) '남아돈다더니 사라진다, 감산정책 기후위기 그리고 쌀'이 이름을 올렸다. KBC광주방송(신대희·임경섭·양휴창·정의석) '폭우 속 멈춘 천억 펌프장, 행정의 민낯' 기획보도, 전남CBS(유대용·박사라)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광주MBC(김철원·김환) 5·18 45주년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가 **우수상** 대열에 섰다.

사진 부문 최우수상은 임문철 남도일보 기자의 '불꺼진 무안공항…추모 리본만'이 받고, **우수상**에는 김양배 전남일보 기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염원 밝히는 수퍼문'과 김진수 광주일보 기자의 '남은 자들의 기록: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가 선정됐다.

편집 부문 최우수상은 전남일보(박성원·최권범·서여운·최지운) 'MZ세대 사로잡은 투표 인증용지 등 도전적 1면 실험'이 받았다.

김현주 무등일보 기자는 '백면의 변신은 무죄'로, 양설란 광남일보 기자는 '경제+기술로 미래를 여는 기업 등'으로 **우수상**을 받았다.

한편 시상식에서는 광주전남기자협회의 동반자로서 한중 지방정부 교류에 힘쓴 구징치 주광주중국총영사에게 감사패를 전했다.

글·사진 백희준 사무국장



참사의 비극 속 기록은 멈출 수 없다

2025 올해의 기자상 대상
연합뉴스


형민우


박철홍


정회성


천정인


정다움


김혜인

국가 항공안전 허점 집중 조명
항공법·해외규정 등 구조적 접근
"이런 사고 다시는 반복 없길"

2024년 12월 29일. 연말 휴일이던 일요일 아침,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다급한 알림이 울렸다. 여객기가 공항 시설물에 부딪혀 폭발했다는 내용이었다. 정확한 상황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장비를 챙겨 무안국제공항으로 향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고의 전모는 쉽게 파악되지 않았다.

사고 지점과 현장지휘소를 묻는 질문에는 "모르겠다"는 답만 돌아왔다. 통제선은 곳곳에 설치돼 있었고 현장은 혼란스러웠다. 사이렌을 울리며 계류장으로 이동하는 경찰차와 구급차의 방향을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지나며 탑승객 가족들이 하나둘 공항에 도착했다. 잠옷 차림에 슬리퍼를 신은 채 급히 달려온 이들도 있었다. "내 가족이 저 안에 있다"는 호소가 이어졌지만 출입 통제는 유지됐다. 혼비백산한 현장을 마주한 순간 상황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그러나 기자로서 이 현장을 기록해야 한다는 사실만은 분명했다.

사고 발생 약 12시간 뒤인 오후 9시 30분, 현장에서 179명이 사망했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다. 국내 여객기 사고 가운데 가장 큰 인명 피해였다. 공항 대합실의 분위기는 급격히 가라앉았고 현장은 울분과 절규가 뒤섞인 공간이 됐다. 공항을 가득 메운 유가족들의 호소에도 취재는 멈출 수 없었다.

이후 취재팀은 공항에 거점을 두고 교대로 현장을 지켰다. 수시로 열리는 브리핑을 전하며 사고 원인을 추적했다. 조사 과정에서 조류 충돌로 기체에 이상이 생긴 여객기가 활주로 착륙을 시도하다 시설물과 충돌해 참사로 이어졌다는 사고 경위가 드러났다. 특히 충돌 지점에 설치된 로컬라이저 등 항공 안전 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집중적으로 짚으며, 국가 항공 안전 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내고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난해한 항공법과 해외 안전 규정까지 분석하며 참사의 진실에 한 걸음씩 다가섰다.

희생자 '179명'이라는 숫자 뒤에 놓인 사연들은 유가족의 목소리를 통해 전해졌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3대가 함께 다녀온 가족여행까지 희생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아무도 모르게 눈물을 훔치고, 무너지는 마음을 다잡으며 취재에 임했다.

사고 수습이 진행되고 모든 장례가 마무리되자 공항에 모였던 취재진도 하나둘 현장을 떠났다. 취재팀은 마지막까지 공항을 지킨 뒤 각자의 취재 현장으로 복귀했다. 참사의 비극 한가운데서도 기록은 이어졌고 그 기록은 현장을 떠난 뒤에도 남았다.

현장을 떠나며 동료들이 공통으로 남긴 말은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인간적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에도 기록을 멈출 수 없었던 이유는 그 기록이 기억이 되고 이후의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참사로 희생된 모든 이들의 명복을 빌며 1년 넘게 깊은 슬픔 속에 있는 유가족들에게도 마음으로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 또 현장을 함께 지킨 선배들과 파견과 취재를 지원한 취재본부, 편집국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전문성 돋보이는 예리한 포착, 시민 눈과 귀 됐다"

2025 올해의 기자상 심사평

'2025년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 심사위원회를 대신하여, 출품된 모든 작품에 담긴 언론인의 노력과 진정성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심사위원의 일원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많은 총 66편이 6개 부문에서 출품되었습니다. 출품한 작품 모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눈과 귀가 되기 위하여 지역 사회의 변화를 예리하게 포착하고, 언론의 공적 책임에 부합하는 작품들이었습니다.

하나같이 언론인의 땀방울과 노력이 반영된 결실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우열을 가리는 작업이 쉽지 않았습니다. 심사위원 모두 숙고를 거듭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최종 결정에 임했습니다. 수상자에게는 뜨거운 축하를 보내며, 그 밖의 모든 출품 언론인에게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2025년 광주전남기자협회 올해의 기자상에는 총 22편의 수상작이 선정되었습니다. 2025년은 아시다시피 트라우마로 남을 대형 사고가 유난히 많았던 한 해였습니다. 대상에는 연합뉴스의 '참사 뒤 숨은 콘크리트 둔덕'을 선정했습니다. 179분의 목숨을 앗아간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알려진 로컬라이저 구조물 문제를 최초로 규명한 보도라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습니다. 또 신문통신 취재 보도 부문에는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연속보도' '전남도청 마지막 지킨 기동타격대, 그들은 누구인가' 등 기획취재와 견주어 손색없는 심층성과 전문성이 돋보이는 기사가 많았습니다.

방송 부문에서는 이주노동자, 기후위기, 지역소멸 문제 등 지역 사회가 직면한 현안을 고발한 보도들이 돋보였습니다. 우리가 쉽게 돌아보지 못하는 주변부의 목소리를 탐사적으로 다루었다는 점에서 저널리즘의 본령을 보여준 취재라고 생각합니다.

수상한 모든 분들께 축하를 전하면서 덧붙여 바라는 바는, 사건 중심의 보도에 머물지 말고 구조적 문제를 파고드는 역할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심사의 어려움이 가장 많았던 부문은 사진과 편집 부문이었습니다. 먼저 편집은 단순히 지면을 구성하는 기술이 아니라 독자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을 설계하는 '두 번째 취재'라고 봅니다. 한 줄의 제목, 한 장의 사진 배치, 기사 간의 관계 설정은 신문만이 구현할 수 있는 저널리즘의 영역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한 장의 사진은 수많은 문장보다 강력하게 현실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포토저널리즘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시대와 지역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메시지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두 부문 모두, 장르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자들의 주관적 문제의식과 시각이 반영된 작품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가 지역에서 기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자 큰 자긍심일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알권리와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현장을 지키는 모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을 보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헌신이 우리 지역을 지키는 흔들리지 않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늘 감사드리며 언제든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상의 영예를 안은 모든 분께 축하드립니다.



한 선 교수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회원사
光州日報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全南日報 M 전남매일 GWANGNAM 광남일보 THE NAMDO ILBO 남도일보
광주매일신문 KBS 광주 MBC 목포 MBC 여수 MBC 광주CBS 전남CBS
kbc 광주방송 BBS 광주불교방송 연합뉴스 YONHAP NEWS AGENCY NEWSIS 광주전남본부 news1 KOREA

2026년

지속가능 광산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





지원기간 2026. 1.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내장형칩으로 동물등록한 반려견, 반려묘 소유자

지원내용 동물등록비(마리당 4만원) *소유자 선결제 후 계좌 입금

신청방법 동물병원(대행업체)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후 지원 청구서 작성
대행업체는 광산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동물보호.복지 확인 가능

문 의 광산구 산업혁신과(☎062-960-8513)

※ 등록대상동물(2개월령 이상의 개)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위반으로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GwangSan 광 산 구

화마가 삼킨 현장, 이후를 말하다


정회성


천정인


정다움


김혜인

신문·통신 취재 최우수상
연합뉴스

2025년 5월 17일 토요일 오전 사건팀 단체대화방 알람이 울렸다.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 뒤도 돌아보지 않고 노트북을 가방에 욱여넣고 카메라를 집어 현장으로 향했다.

그 사이 시시각각 커져가는 화재 상황은 쉴 새 없이 단톡방에 올라오고 있었다. 한 손으로 운전대를 다른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쥐고 위태로운 운전을 해야 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시커먼 연기는 하늘을 뒤덮은 지 오래였고, 메케한 탄 내음은 코끝을 찔러 눈물을 빼놓기에 충분했다. 진화 작업에 매달린 소방관들과 공장 정문을 통제하는 경찰 사이를 누비며 화재 상황을 전했다.

불길은 공장 안팎을 태우며 30여 시간이 지난 뒤에야 잠잠해졌다. 이후 불을 완전 진화할 때까지 현장을 지키며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불길은 어렵게 잡았지만 더 큰 문제가 산적해 있었다.

멈춰 선 공장을 일터로 삼았던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과 지역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시민사회 우려, 인근 주민들의 불편 등을 짚는 후속 기사를 이어갔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인명 피해가 뒤따르는 재난 현장이 반복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상 무게만큼 무거운 마음"

신문·통신 사진 최우수상
남도일보


임문철

상패의 무게만큼이나 마음 또한 무겁다.

항상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 애써온 사진기자 남편을 묵묵히 응원해준 아내와, 아버지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겨준 딸 하윤이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아울러 말없이 기자들을 뒷받침해주신 박준일 사장님과 선·후배 여러분도 깊이 감사드린다.

사진은 기록이지만, 동시에 질문이라고 믿어왔다. 무엇을 보고 외면하고 있는지를 묻는 일이라 생각해왔다. 이 상 또한 그 질문을 멈추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불꺼진 무안공항…추모 리본만' 이라는 사진으로 최우수상을 받게 되면서, 영광보다 책임을 먼저 떠올리게 된다. 다시 한번 179명의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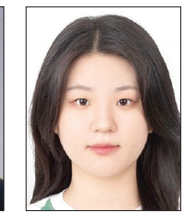
"신문 들고 투표소 향한 시민이 진짜 주인공"

신문·통신 편집 최우수상
전남일보


박성원


최권범


서여운


최지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저희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신문은, 지역언론은 시민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참여하게 만드는 신문을 만들어보자는 고민 끝에 1면에 '투표 인증 용지'라는 파격적인 형식을 선택했습니다.

전남일보 신문 1면을 오려 들고 투표소로 향하는 시민의 모습, 기표 도장 하나로 문장을 완성하며 민주주의에 참여하는 경험, 세대와 지역을 넘어 SNS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된 인증 문화는 저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반응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시도에 적극 공감하고 참여해준 담당 데스크, 디자인과 제작에 공을 들인 편집부서, 그리고 무엇보다 기꺼이 신문을 들고 투표에 나서 준 시민 한 분 한 분이 이 상의 진짜 주인공입니다. 전남일보, 더 나아가 지역신문의 1면이 사회를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정병호


유연재


김다인


김진아


양재희


장혜원


서민경

신문·통신 기획 최우수상
광주일보

대한민국 역사의 변곡점이었던 12·3 비상계엄 사태와 촛불혁명 당시 시민들의 피켓과 구호에 가장 많이 등장한 문장이 있다. 독립운동가 신채호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외침이다.

광복 80년의 세월을 지나 다시 마주한 광주·전남 아시아·태평양 전쟁 유적지의 실태는 방치와 훼손으로 얼룩져 있었다.

10대 아이들이 무임금으로 강제 노동에 동원돼 채굴 작업 중 다리를 잃기도 했던 해남 옥매광산에는 역사를 알리는 안내판 하나 설치돼있지 않았다. 옛 목포영사관과 동양척식주식회사 건물이 수난의 상징으로 남아 있지만 주변의 해안 동굴들은 잡초와 쓰레기에 뒤덮여 방치된 상태였다.

특히 광주 가네보 방직에서 하루 12시간씩 강제 노동에 시달린 10대 소녀 2500여 명의 기록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근대 산업문화유산이다.

이번 취재를 통해 400여 곳에 달하는 우리 지역의 전쟁 유적들이 실태 조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현실을 마주할 수 있었다.

유적이 철거되기 전 그 역사성을 보존하고 기억할 콘텐츠 논의가 시급하다.

이번 보도가 일회성 기록에 그치지 않도록 사라져가는 광주·전남의 아픈 역사 현장을 끝까지 추적하고 실질적인 관리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소명을 다하겠다.

두 달간의 취재…뚤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나

방송 취재 최우수상
KBC광주방송


신대희


김형수


임경섭

그가 떠나고 싶었던 곳은 '철창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지난해 2월 전남의 한 돼지농장에서 일하던 26살 네팔 청년 뚤시가 숨졌습니다. 희생의 배경엔 농장주의 횡포와 방치된 신고, 무력한 대응이 겹친 구조적 비극이 있었습니다. 취재진은 두 달 넘게 동료 이주 노동자들을 만나 신뢰를 쌓았고, 농장주에게 폭언·폭행을 당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취재는 이주 노동자들의 절규가 왜 묵살됐는지를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노동청과 파출소에서는 "또 맞으면 그때 오라", "증거 있냐"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주 노동의 구조적 취약성과 반복되는 뒷북 감독, 농축산업 사업장 관리 소홀의 원인을 분석해 보도했습니다.

보도 뒤 농장주는 실형을 선고받았고, 감독과 제도 점검도 시작됐습니다. 통역·신고·보호, 사업장 이동의 자유까지 제도의 빈틈을 메우는 일이 남았습니다. 뚤시의 희생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더 집요하게 취재하겠습니다.

용기 내 증언해 준 이주 노동자들과 함께 뛴 보도국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반복되는 쌀 문제' 지속적인 관심이 답"

방송 기획 최우수상
최우수상 목포MBC


박종호


민정섭


홍경석


노영일

이번 보도는 반복되는 쌀값 불안과 구조적 문제를 단순한 수치나 정책 논쟁이 아닌, 지역 현장의 삶으로 보여주고 싶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남아돈다더니 사라진다' 기획 보도는 그 질문을 한 번의 보도로 끝내지 않고, 축적된 기록으로 남기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쌀이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지역 경제와 공동체, 농정의 방향을 동시에 비추는 거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생산 조절과 책임이 농민 개인에게 전가되는 구조, 현장과 괴리된 정책 결정 과정은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올해는 쌀을 전략작물로 지정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들리고 있지만 쌀 산업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쌀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그리고 의무 수입량 등 정부가 감춰놓은 데이터의 허점을, 거짓말을 찾아내기 위한 과정은 순탄치는 않았고, 모든 걸 다 해결하진 못했지만 목포MBC는 지속적으로 쌀에 대한 보도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안전 문제, 가장 먼저 의심”

신문·통신 취재 우수상
뉴스 1


최성국


이승현


박지현

이번 취재를 통해 위험은 언제나 현장에 존재하지만, 알려지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사실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드러내는 일은 여전히 언론의 몫입니다. 불편한 질문을 던지고, 침묵의 이유를 묻고, 기록으로 남기겠습니다.

이 상을 계기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지겠습니다. 행정의 발표를 받아쓰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이면을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의심하고, 가장 늦게 포기하겠습니다.

“80년 5월 광주 공동체 정신 이어갈 것”

신문·통신 취재 우수상
무등일보


이용규


김현주


차솔빈

이번 수상은 무등일보 취재팀 모두에게 큰 영광이자 동시에 더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옵니다. ‘전남도청 마지막 지킨 기동타격대, 그들은 누구인가’는 1980년 5월의 한복판에서 마지막까지 전남도청을 지켰던 이들이 왜, 어떻게 싸웠는지 그리고 그 선택이 이후의 삶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를 기록하고자 한 취재였습니다. 기록 속 몇 줄로만 남아 있던 기동타격대원들을 직접 만나 그날의 긴박했던 순간과 이후 45년의 세월을 듣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이어지는 후유증과 고통, 침묵 속에 묻혀 있던 삶을 마주하며 기사 한 줄, 문장 하나에 담긴 무게를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 시리즈는 과거를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아직 끝나지 않은 5·18민주화운동의 과제와 국가·사회가 외면해 온 책임을 묻는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암매장 지도 원본의 행방을 추적하는 과정은 진실이 여전히 현재진행형임을 보여줬습니다. 이번 수상을 계기로 무등일보 취재팀은 더 멈추지 않겠습니다.

“행정 편의가 인간의 존엄 덮지 않도록”

신문·통신 취재 우수상
광주매일신문


김진수


김재정


김애리


변은진


안재영


주성학

이번 ‘소비쿠폰 주홍글씨’ 보도는 화려한 특종을 좇은 결과가 아니었다. 현장에서 마주한 작은 의문 “도움을 주는 정책이 왜 누군가에게는 숨기고 싶은 상처가 돼야 하는가”라는 물음표 하나가 출발점이었다.

금액에 따라 색깔을 달리한 소비쿠폰은 관리자에게는 단순한 분류 체계였을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에게는 계산대 앞에서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낙인’과도 같았다. 이 상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이들의 곁을 지키라는 격려의 뜻으로 받아들이겠다.

“혈세 낭비 축제, 다시 지역민의 품으로”

신문·통신 기획 우수상
남도일보


김다란


이서영

이번 기획은 지역 축제에 수십,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전남 각 시·군의 최근 5년간 축제 예산과 집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로 확보했고,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회계 항목을 분류해 전수 분석했습니다.

취재팀은 타 지역의 성공 사례와 전문가 제언을 함께 분석하며, 천편일률적 축제 구조에서 벗어나 지역민의 문화권 보장, 체류형 관광 확대, 독창적 콘텐츠 중심 기획이라는 지역 축제 혁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지역 축제가 다시 지역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주 여성길 걸으며 공동체 정신 느꼈다”

신문·통신 기획 우수상
전남매일


박간재


김수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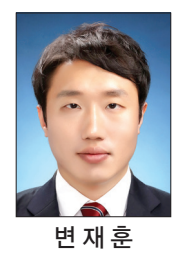
이번 수상을 계기로 광주 여성들의 삶과 활동이 지역과 사회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원으로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광주여성길이 지역은 물론 타 지역민들에게도 광주 여성 역사문화 자원의 선진사례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 광주여성길을 직접 걸으며 취재를 이어가다 보니 그 공간마다 여성들의 헌신과 열정이 쌓여 있었고 그 힘이 지금의 나와 광주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을 새삼 인식하게 됐다.

이번 기획은 중앙, 남성, 엘리트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 벗어나 광주를 이끌어온 역사적 여성들을 발굴하고 소개하고자 한 작업이었다. 독자들에게도 여성 역사 서술의 의미를 전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뒤틀린 맹모지교에 경종 울리길”

신문·통신 기획 우수상
뉴시스 광주전남본부


변재훈


김혜인

이번 보도는 ‘광주의 강남’으로 불리는 봉선동 학군지에서 공공연하게 이어져 온 위장전입 실태를 공론화하는 데서 출발했다. 학군지 초등학교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위장전입용 원룸과 빌라 거래가 실제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행정기관의 실거주 확인이 형식에 그치는 사이, 매년 취학 아동 추계를 크게 웃도는 학생들이 입학했다.

보도는 위장전입이 주민등록법 위반이자 교육의 공정성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문제라는 점을 짚었다. 과도한 교육열이 만든 구조적 문제 역시 함께 들여다보고자 했다. 이번 기획 보도가 불법 위장전입을 근절하는 계기가 되고, 뒤틀린 교육열의 현주소를 돌아보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앵글 속 빛나는 5·18정신, 헌법 수록으로 이어지길”

신문·통신 사진 우수상
전남일보


김양배

제45주년을 맞이하는 5·18민주화운동. 80년 5월과 2024년 12월 3일 계엄에 맞서 지켜낸 민주주의, 늘 그 중심엔 광주정신이 함께 했기에 더욱 의미 있는 해였다. 하나 되는 대동세상을 위해 반드시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45주년에 반드시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는 의미를 담아 기획했다.

사진은 45주년을 앞두고 어둠이 드리운 국립5·18민주묘지. 생명의 부활을 상징하는 국립5·18민주묘지 추념탑. 그 사이로 떠오르는 슈퍼문의 빛이 스며드는 영령들의 묘를 2~3시간 동안 안고 촬영했다. 이 빛이 5·18 정신의 헌법 수록이라는 결실로 이어지길 바라는 염원을 담아 봤다.

35년의 사진기자 생활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받은 의미 있는 상이다. 앞으로도 광주의 오월을 영원히 기록하겠다.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지 않는 기록자 되겠다”

신문·통신 사진 우수상
광주일보


김진수

2024년 12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추락 사고의 비보를 접한 순간부터 현장은 슬픔의 기록장이 되었다.

‘남은 자들의 기록’은 사고 당일의 검은 연기부터 삭풍 속에 이어진 유품 수색과 사고의 진상을 밝혀내는 과정까지를 담아낸 사진 연작이다.

비록 하루하루 지면에 실린 현장의 모습들을 엮어낸 수준 낮은 연작이지만 단순히 처참한 잔해만을 비추지 않도록 노력했다.

활주로 끝 철조망에 붙은 애절한 손편지, 주인을 잃고 흙 속에 묻힌 신발 한 짝, 그리고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올린 눈물의 제사 등 현장의 파편들을 묵묵히 이어 붙였다.

취재 내내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가장 큰 원칙은 ‘타인의 고통을 소비하지 않는 기록자’가 되는 것이었다. 진실의 무게를 온전히 전달하는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진기자로 남겠다.

멈춘 펌프장, 멈추지 말아야 할 책임

방송 기획 우수상
KBC광주방송


신 대 희


임 경 섭


양 휴 창


정 의 석

지난해 7월 17일 기록적 폭우가 광주·전남을 덮쳤습니다. 구례의 비닐하우스는 물에 잠겼는데, 바로 옆 1000억 원 배수펌프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한 농민의 제보가 취재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취재진은 '고장'이 아니라 '인재'일 수 있다고 보고 현장을 찾았습니다. 군청과 한전을 오가며 공문을 대조했고, 전선 하나가 연결되지 않아 펌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장마 전 점검도, 시운전 기록도 없었습니다.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반복되고 군수 친인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보도 뒤 멈췄던 주전력선 공사가 재개됐고, 전남도 감찰과 군의회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을 지키는 보도가 제도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난과 권력의 빈틈을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시대' 지역 언론 역할을 묻다

방송 기획 우수상
전남CBS


유 대 용


박 사 라

'지역은 소멸하지 않는다' 특집기획은 무엇보다 수도권 쏠림과 인구감소 심화로 각종 지역 소멸지수에서 가장 미래가 불투명한 지역으로 손꼽히는 전남에서 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출산 장려금·단기 정책·지원금 등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보도에서 벗어나 '지역소멸'에서 파생된 무분별한 소멸지수 남발의 부작용을 짚는 데 중점을 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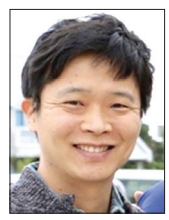
언론 등을 통해 확산되는 숫자(소멸지수)가 지역에 심각한 낙인 효과를 불러와 지역에 남아 살아가길 원하는 이들, 혹은 젊은 층과 다음 세대들을 지역에서 내치는 기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지역소멸과 소멸지수를 비판적 시각 없이 그대로 인용하는 현재 언론의 행태에 대해서도 돌이켜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특집 기획보도가 지역언론 역시 인구감소 위기의 당사자이자 해법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하는 주체임을 분명히 하는 마중물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시(詩)로 기록한 광주의 자부심

방송 기획 우수상
광주MBC


김 철 원


김 환

2024년과 2025년은 우리 광주·전남 시도민, 그리고 기자협회 동료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44년 전 광주를 짓밟았던 계엄의 공포가 되살아났던 순간, 우리는 다시금 국가폭력에 굴하지 않는 기억과 경험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광주'가 있었습니다. 이는 광주 시민들이 충분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5·18 45주년 다큐멘터리 '광주만이 빛나고 있었다'는 바로 그 자부심을 가득 안고 제작한 기록입니다. 제목은 1982년, 5·18 2주기 당시 광주의 참상을 목격한 일본 시인들이 펴낸 시집에서 따왔습니다. 5·18을 다룬 영화나 소설은 많았지만, 오직 '시(詩)'만을 소재로 한 방송 기획은 없었기에 도전했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받게 되어 영광입니다.

"신문 지면의 힘, 저널리즘 확장으로"

신문·통신 편집 우수상
무등일보


김 현 주

'백면(20면)의 변신은 무죄'는 늘 광고가 차지하던 신문 백면을 독자에게 돌려주자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특히 백면은 신문을 펼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시선이 닿는 면으로, 또 다른 1면과 다름없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단순한 기사 배치가 아닌, 사진·그래픽·일러스트 등 시각적 요소를 적극 활용한 '눈으로 읽는 신문'을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복잡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전달하고, 독자가 잠시라도 눈길을 멈출 수 있는 시선이 머무는 지면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편집은 장식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또 다른 언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도는 광고 의존도를 줄이고, 콘텐츠의 가치와 공익성을 우선하겠다는 무등일보의 편집 철학을 실험적으로 지면에 구현한 사례이기도 합니다. 단기적인 효율보다 독자와의 신뢰, 신문의 미래를 선택한 결정이었고, 그 선택이 독자와 평가위원들로부터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낍니다. 백면의 변화가 신문의 변화로, 나아가 지역 저널리즘의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배열·제목·지면 구성…가독성 매진"

신문·통신 편집 우수상
광남일보


양 설 란

이번 수상은 경제 이슈를 독자에게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전달하고자 한 편집의 고민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기술로 미래를 여는 기업' 등 각 기획 컷의 성격에 맞는 배열과 제목, 지면 구성을 통해 독자가 자연스럽게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길 바랐다.

편집은 단순히 기사를 나열하는 작업이 아니라, 정보의 무게를 조절하고 기사의 의미를 더 또렷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느꼈다. 기사와 기사 사이의 맥락을 살리고, 전체 기획의 흐름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구성하는 데 많은 고민을 기울였다.

딱딱할 수 있는 지면에 생기를 넣고, 독자가 쉽고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

신문은 정보이면서 동시에 트렌드다. 이번 수상은 편집부만의 성과가 아닌, 취재 기자들과 함께 방향을 고민하고 의견을 나눈 결과라고 생각한다.

광주전남기자협회가 제게 큰 선물을 해준 거로 생각하겠다.

앞으로도 기획의 의도와 현장의 의미가 독자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편집을 이어가겠다. 또 좋은 지면을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외국인 노동자 관리 공백 지속적 점검을"

방송 취재 우수상
여수MBC


최 황 지


배 준 식

광양의 한 농촌 마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잇따라 사업장을 이탈했습니다. 취재팀은 단순한 발생 사건이 아닌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일 가능성에 주목해 취재를 확대했습니다.

취재 결과, 법무부가 내전 중인 미얀마 상황을 고려해 만든 '인도적 체류 비자(G-1-99)' 제도가 일부 외국인 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었습니다. 이탈한 노동자들은 고용허가제 비자로 입국하고 해당 비자로 전환해 사업장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외국인 인력을 관리하는 관계부처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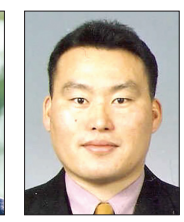
더 큰 문제는 이를 제재하거나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미 농촌 공동체의 중요한 일원으로, 그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해야 할 법과 제도는 여전히 사각지대를 안고 있습니다. 취재팀은 앞으로도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리 공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엉터리 평가·사업 지연, 행정 불신 이어진다"

방송 취재 우수상
KBS광주


김 호


박 석 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공모 절차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부적격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 1위로 선정됐습니다. 업체의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서류인 실적증명서의 각종 수치는 기준치를 벗어났지만 걸러지지 못한 채 엉터리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이후 재공모와 재평가에서도 논란은 계속됐습니다. 광주시가 제1하수처리장 처리 용량을 늘리기 위해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개량사업 과정에 발생한 일들입니다.

결과는 공모와 평가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습니다. 탈락한 업체는 광주시와 특정 업체 간 유착을 의심하며 수사기관에 고발했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단순한 실수"였다고 했지만, 각종 논란 속에 수백억 원의 사업권을 놓치게 된 업체 입장에선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재공모가 진행된 수개월간 사업은 지연됐고, 행정력도 낭비됐습니다. 공모 사업을 둘러싼 광주시의 부실 행정이 개선되길 바랍니다.

3월의 신랑·신부 축하해주세요

사내 연애의 행복한 결말

이승현 뉴스1·김동수 KBC 기자



복사기도 다 안다는 사내연애를 눈치 없는 뉴스1 광주전남본부 식구들은 아무도 몰랐다. 이승현 기자와 최근 자사에서 KBC 광주방송으로 이직한 김동수 기자가 부부가 된다.

이들은 호남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대학 동기로 만나 학생회 활동을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친분을 쌓았고, 이후 우연히 같은 회사에 입사하면서 다시 한 번 인연이 이어졌다.

두 사람의 연애는 조심스러웠다. 광주와 여수 장거리 연애로 주말에만 만났고, 혹시라도 주변에 알려질까 모자를 쓰고 심야 영화관을 찾는 등 '연예인급 데이트'를 즐겼다. 다행히(?) 비밀연애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다.

결혼식은 3월 7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광주 서구 위더스웨딩홀 1층 메리엘홀에서 열린다.

이수민 편집위원

"친구처럼 연인처럼 함께할게요"

홍승현 전남매일 기자



홍승현 전남매일 기자가 오는 3월 21일 화촉을 밝힌다.

홍 기자는 예비 신부 김지현씨와 지난 2021년 9월 지인 소개로 인연을 맺게 됐다. 정식 약속을 잡기 전 각자의 개인 일정을 마친 뒤 번개로 가졌던 첫 만남이 관계의 출발점이 됐다.

당시 코로나19로 저녁 시간 가게가 영업을 하지 못하던 시절. 모기에 맞서면서도 공원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눌 만큼 마음이 통했다고 한다. 교제를 시작한 직후 한 달간 하루도 빠짐없이 만날 정도로 서로에게 매료됐다.

홍 기자는 "천생연분이란 이런 걸까…놓쳐서는 안 될 인연이라 생각해 결혼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결혼식은 3월 21일 오후 4시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 예식장 2층 라벤더홀에서 열린다.

조혜원 편집위원

김진수 광주·전남사진기자회장 '3연임'



김진수 광주일보 사진부 차장이 한국사진기자협회 광주·전남사진기자회 제21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김 신임 회장은 지난 2022년 제19대 회장을 시작으로 2024년 제20대에 이어 이번 제21대 회장직까지 거머쥐며 이례적인 '3연임'의 기록을 세웠다.

사진기자 선후배들의 두터운 신망을 재확인한 김 신임 회장의 이번 임기는 이달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총 2년간이다.

김 회장은 지난 2004년 광남일보 사진기자로 언론계에 첫발을 내디딘 후 20여년간 사건·사고 현장을 누벼왔다.

김 회장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사진기자 개개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변화를 주도해 나갈 것"이라며 "회원들의 권익 향상은 물론, 역사의 기록자로서 보도사진의 본질적 가치를 바로 세우고 안전하면서도 안정적인 취재 환경을 조성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전남사진기자회에는 광주일보를 비롯해 광남일보, 광주매일신문, 남도일보, 무등일보, 전남매일, 전남일보,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뉴시스 등 지역 및 전국 단위 11개 언론사 소속 사진기자 2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김다인 편집위원

한 통의 제보에 곧장 서울행 광주학생독립운동 홀대 지적

남도일보 김다란·이서영 기자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이달의 기자상을 받은 김다란(가운데)·이서영 기자와 김명식(왼쪽) 편집국장.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에 광주학생독립운동 자료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독립운동기념일을 앞두고 한 통의 제보를 받았습니다. 당혹스러웠습니다. 항일의 상징인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록이 빠져 있을 리 없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곧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역사관 측에선 "전시가 돼 있는데, 제보자가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고 넘길 수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궁금증이 남았습니다. '왜 제보자에게는 그 기록이 보이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음 날 바로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현장에서 관련 자료를 찾는 데만 무려 40분이 걸렸습니다. 구석진 곳에서 발견한 건 일본어로 된 '광주학생독립운동 조사보고서' 단 한 점뿐이었습니다. 1910년대 3·1운동, 1920년대 6·10만세운동 등이 큰 글씨로 안내판에 적혀있는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도슨트의 해설에서도 광주학생독립운동은 생략됐습니다. 제보자의 '오해'가 아니라 명백한 '홀대'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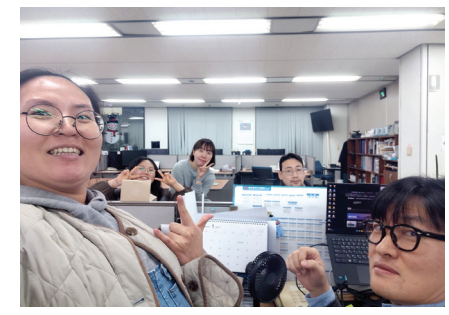
총 9차례의 보도에서 취재팀은 광주학생독립운동 홀대 실태를 지적하고, 성진회 창립지 발굴 등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발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번 상은 서울 출장을 흔쾌히 지원해주신 박준일 사장님과 김명식 편집국장님, 취재가 막힐 때마다 맥을 짚어주신 이건상 국장님, 현장에서 함께 고생한 이서영 기자 덕분에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의심하고 집요하게 살피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김다란 편집위원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이달의 기자상·민언련 좋은 보도

4개 언론사 공동 기획·보도 공약이행률 공천 반영 약속도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백희준·정병호·김민석·김해나·도선인 기자.

광주일보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연속 보도가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에 선정됐다.

지난 23일 한국기자협회가 주관하는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전날 심사 회의를 열고 424회(2025년 12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광주일보 보도 등 8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일보와 경기일보, 영남일보, 충청투데이 4개 언론사가 공동 기획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광역의회를 바꾸다'는 이달의 기자상 '지역 기획보도 신문·통신부문' 수상작에 이름을 올렸다.

10여 차례에 걸친 공약 추적단 보도는 지역 언론이 힘을 합해 각 지역 정치의 실질적 성과를 점검하고 공공정보의 투명성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사각지대였던 지방의원 공약의 구조적 공백을 드러내고, 전국 단위의 공약 관리 필요성을 공론화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공약추적단의 연속 보도 이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국 광역의회에 공약 기재 기준 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경실련은 "광주일보를 포함한 지역 언론사로 구성된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의 노력으로 일부 시·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의원 공약을 볼 수 있도록 개편의 움직임이 있다"며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 참여 감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른 시·도의회도 즉각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현역 지방의원들의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공약이행률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전남도당 위원장들의 약속도 받아냈다.

앞서 광주일보 보도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올해의 좋은 보도상'을 받기도 했다.

김다인 편집위원

“이 표현, 한 번만 더 고민을” 공부하는 기자들

광주 기자들, 시 인권옴부즈맨과 협업
지난 연말부터 ‘인권 보도 모니터링’
기사·보도자료 속 인권 감수성 되짚기
협회보에 ‘생각할 거리’ 카드뉴스 공유



양창희 KBS광주, 서충섭 뉴스1, 양재희 광주일보 기자가 광주시 인권옴부즈맨과 ‘인권 보도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깜깜이 기간’ 시작’. 선거를 앞둔 시기, 흔히 볼 수 있는 기사의 제목이다. 정보가 제한된 상황을,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빗대 ‘깜깜이’라고 썼다. 대부분 별 문제 의식 없이 흘려보낼 만한 내용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이 말이 상처가 된다. 대표적인 시각장애인 차별 표현으로 꼽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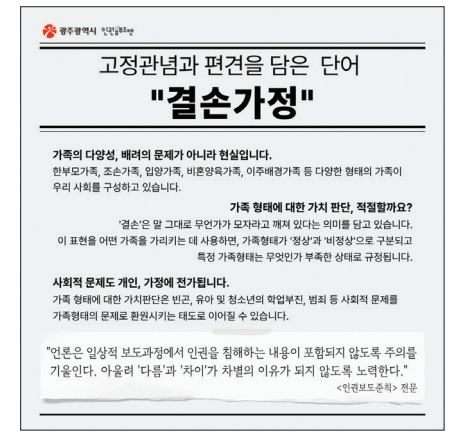
‘내가 쓰는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을까.’ 짧은 시간에 실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다채로운 언어로 표현하는 기자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고민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주시 인권옴부즈맨과 서충섭, 양재희, 양창희 기자 등이 모여 ‘인권 보도 모니터링’을 시작한 이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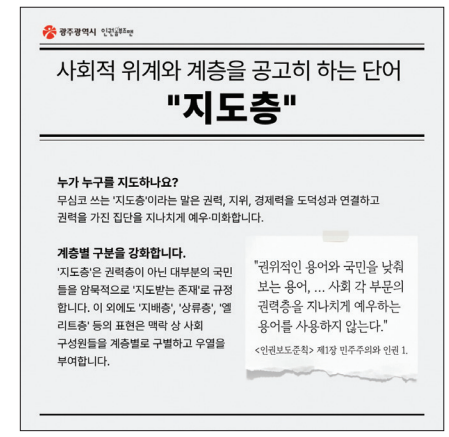
모니터링팀은 지역 언론뿐 아니라 전국에서 쏟아지는 기사와 보도자료를 대상으로 ‘공부’를 시작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하지만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과 ‘인권보도 사례집’을 참고했다.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표현은 없는지, 독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쓴 제목이 혹시 편견을 강화하지는 않는지 등에 초점을 두고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공부의 결과물은 카드뉴스 형태로 제작해 광주시 행정 포털과 유관 기관, 기자협회보 등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런 표현은 사용을 금지해 달라’는 것이 아니다. 한 번씩만 인권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는 의미다.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말과 글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기자 사회에 확산하길 기대한다.

글·사진 양창희 KBS광주방송총국 기자

◇광주시 인권옴부즈맨 카드뉴스





“지금까지 이런 단합은 없었다” 엠티 떠난 ‘타사’ 동기들



‘저연차’ 티를 벗어가는 광주·전남 6개 언론사 4년 차 기자들이 지난달 1박 2일 엠티를 떠나 우정을 다졌다.

6개사 4년차 동기 9명 의기투합
바닷가서 ‘파워J’ 1박 2일 여행

2022년 12월부터 2023년 상반기 입사한 기자 동기들이 지난달 12일 1박 2일 엠티를 떠났다.

‘프로엠티러’ KBS광주 손민주 기자가 엠티추진단장을 맡았다. 목포MBC 서일영, 광주일보 장윤영 기자가 합류해 엠티 장소를 물색했다. 율포해수욕장 낙조가 물드는 바닷가 한옥마을, 그곳이 우리의 베이스캠프였다.

광주 대표도서관 붕괴 참사 취재로 몇몇은 아쉽게 불참했지만, 퇴사한 동기까지 찾아와 총 9명이 모였다.

KBC광주방송과 KBS광주, 목포 MBC, 광주일보, 무등일보, 남도일보까지 도합 6개사에서 모인 동기들이었다.

‘파워J’ 들이 준비한 엠티는 지루할 틈이 없었다. 맛있는 바베큐와 간식 그리고 술이 있었다.

남도일보 박준호 기자가 가져온 트럼프 카드로 각종 게임을 하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몰랐다.

‘올해 아니면 다음은 더 어렵다’는 위기감에 시작된 엠티. 경찰서 마와리를 함께 돌던 풋내기가 이제 어엿한 ‘서당개’가 됐다. ‘타사’와 ‘동기’는 어쩌면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그럼에도 지난 3년을 함께 고생했다는 것 하나로 우정은 단단해졌다.

동기들의 희망찬 4년차를 응원하며 이 말을 남긴다. 동기들아, 다음 엠티도 필참해줘!

손민주 편집위원

2년간 고생한 편집위원 제주 바다 보고 심기일전



광주전남기협 편집위 워크숍

광주전남기자협회 편집위원회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도에서 워크숍을 진행했다. 2026년을 맞아 편집위원 간 교류를 넓히고 올해 협회보 운영 방향과 역할을 점검하기 위한 자리였다.

제주 도착과 동시에 체감한 날씨는 예상보다 훨씬 매서워 실내 중심의 일정으로 조정해 워크숍을 이어갔다.

비누 만들기 체험에서는 글리세린 계량을 둘러싼 소소한 해프닝도 벌어졌다. 비율을 잘못 맞춰 제대로 섞이지 않아 기침을 하며 웃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다.

둘째 날에는 오설록 티뮤지엄 방문을 시작으로 제주 지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들을 둘러봤다. 제주 맥주 도슨트 투어에서는 맥주 생산 과정과 웰컴 맥주 시음, 논알코올과 무알코올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후 유동룡미술관에서 재일 한국인 이타미 준의 태생적 경계를 다룬 전시를 관람했다.

마지막 날 밤에는 지난 2년간의 편집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잘된 점과 아쉬웠던 점을 솔직하게 나누며 올해 편집위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짧지만 밀도 있었던 이번 워크숍은 편집위원들에게 협회보의 의미와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한 계기가 됐다.

워크숍의 핵심은 역시 편집위원회 내부 논의였다. 편집위원들은 협회보의 방향성과 역할, 재미와 공공성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44대 편집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해 새롭게 시도할 수 있는 독자 참여형 콘텐츠와 흥미로운 기획 가능성도 함께 논의했다.

조혜원 편집위원


도민소통 플랫폼
광주 + 전남
행정통합
더 당당한 자치! 더 거대한 경제! 더 특별한 내일!
행복한 동행의 시작
광주광역시
GWANGJU CITY
전라남도
JeollaNamdo